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기업에 더 큰 시장을,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2014. 2. 24.(월)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순 서

Ⅰ.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 ····· 1

Ⅱ.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1. 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전략 1)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 7

(전략 2) 규제개혁 및 투자 활성화 ····· 11

(전략 3)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 ····· 15

2.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4)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 ····· 19

(전략 5)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 ····· 22

(전략 6)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 25

3.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

(전략 7) 대외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추진 ····· 28

(전략 8)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 29

(전략 9) 자원·에너지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 ····· 32

4.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전략 10)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 34

Ⅰ.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

1. 기능 및 조직

□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출범시 **통상기능을 이관**받아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주무부처'**로 역할

◈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 (정부조직법 제37조)

□ **본부** : 2차관, 1차관보, 6실, 2국, 18관, 2단, 7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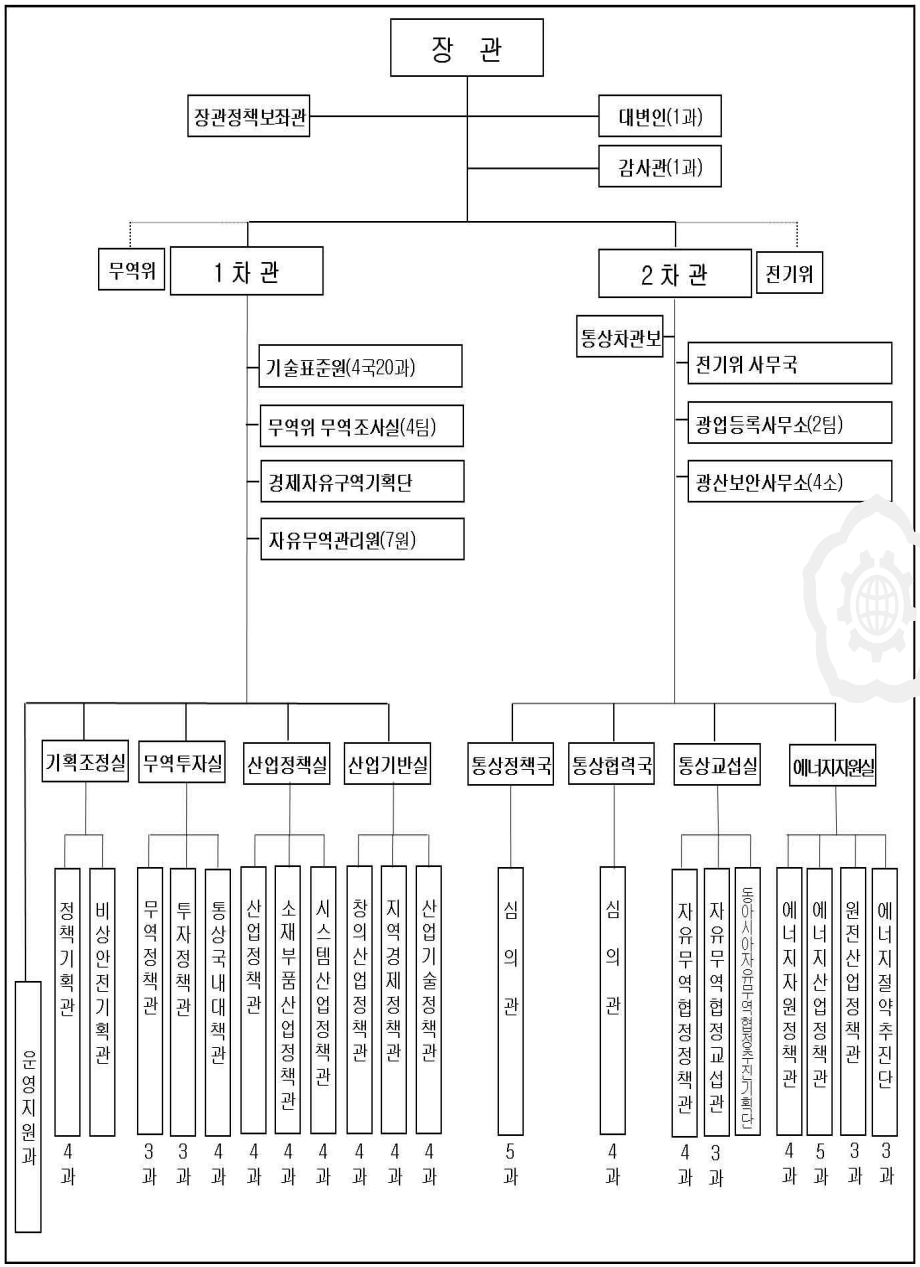
○ **기획·직속 분야** : 기획조정실, 감사관 등 4관 7과
○ **무역·투자 분야** : 무역투자실 3관 10과
○ **산업정책 분야** : 산업정책실 3관 12과
○ **산업기반 분야** : 산업기반실 3관 11과
○ **통상 분야** : 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 2국 9과, 통상교섭실 2관 1단 7과
○ **에너지·자원 분야** : 에너지자원실 3관 1단 15과

□ **소속기관** : 2위원회, 2원, 2소, 1기획단

○ **위원회** :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 **원** : 국가기술표준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소** : 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 **기획단**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Ⅱ.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수출 · 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2 창조 · 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3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

4 산업 · 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2014년 정책방향

❖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4대 정책목표와 10대 전략을 추진

목표

기업에 더 큰 시장을,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추진전략

① 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②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③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
①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② 규제개혁 및 투자 활성화 ③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	④ 선도자형(First Mover) 혁신 ⑤ 창조적 산업 생태계 구축 ⑥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⑦ 대외개방형 통상 정책 지속 추진 ⑧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⑨ 자원·에너지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

④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전략 ⑩)

① 수출 · 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추진전략	1.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2. 규제개혁 및 투자 활성화 3.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
관련 국정과제	5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6-2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7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91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9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전략 1)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 '14년 **수출 사상 최대 6,000억 달러**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사상 첫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애로 해소 지원을 대폭 강화

(1)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무역금융 확대)** 민간 특별출연 신규 추진('14.3월) 등을 통해 전년 대비 3.6조원 늘어난 **총 77.4조원의 무역금융 지원***

*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 ('13년) 73.8조원 → **('14년) 77.4조원 (3.6조원↑)**

○ 환리스크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확대***, **보험료 추가 할인**(+20%p), **새로운 보험상품**** **도입**(2월)

*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 ('13년) 1.7조원 → **('14년) 2.5조원 (8천억원↑)**,
** 환수금 부담없이 환율하락시 전액 보상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 **(해외마케팅 확대)**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중심의 식품 등 분야의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대폭 확대**

* 국내외 전시회 지원 : ('13년) 5,535개사(325회) → **('14년) 5,835개사(333회)**
* 무역사절단 지원 : ('13년) 2,753개사(236회) → **('14년) 2,860개사(245회)**
* 권역별 맞춤형 GP상담회를 위한 거점 무역관 확대: ('13년) 9개 → **('14년) 24개**

○ 특히, 신흥국 위기 등에 대응하여 **중국(105회)**과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북미(57회)·유럽(90회) 시장에 집중 파견**

○ **「제2차 전시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3월)하여 국내 전시산업 육성 및 해외전시회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

□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시장·FTA 활용·비관세장벽 정보**를 **수요자(기업) 맞춤형**으로 실시간 제공

○ **국내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온라인 One-click에 제공(7월, Tradenavi.or.kr)

○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 개통**(3월) 및 **정보사이트(Knowtbt.kr)** 활성화

○ 해외 기업협의체인 **"한국판 암참(KOCHAM)"을 설립·육성**하여 현지 정보 제공, 해외 진출기업의 애로 및 통상현안 해소 지원

*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10개 지역에 해외 기업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 수출 전문가의 1:1 상담을 거쳐 애로 해소를 포함한 수출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TradeDoctor**(코트라) **본격 가동**(3월)

□ **(FTA 활용 지원)** **「FTA활용 성과 점검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5월)하여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을 제고***

* 中企 FTA 활용률(%) : 한·미 ('13) 69.2 → **('14) 75**, 한·EU ('13) 76.3 → **('14) 79**

○ **FTA 콜센터(1380)** 상담인력 확충 및 홍보강화로 **이용 활성화**

○ **지역FTA센터 전문인력 확충***, **원산지 제3자 확인사업 전국 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 강화

* 전국 16개 지역FTA센터 컨설팅 전문가 : ('13년) 20명 → ('14년) 50명
** ('13년) 경기 1개 지역 FTA 센터 → ('14년) 전국 16개 지역 FTA 센터

(2) 내수기업→수출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전문무역상사 본격 운영)** 역량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운영***(7월)하여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일반 무역회사 외에도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조직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여 제조업 외 농수산식품, 서비스 등의 수출 첨병으로 육성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및 **무역금융·마케팅 지원제도 정비**(7월), **전문무역상사-내수기업 매칭 지원사업**(수출 맛보기 사업) 도입(6월)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 '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 10만개를 육성**('13년[P] 8.7만개)하기 위해 기업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

○ 기업별 수출역량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글로벌화 역량 평가**(GCL Test)를 **확대**('13년 코트라 사업 → '14년 중기청 등 他수출지원기관 사업)

○ 내수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확대
(이동 코트라 : '13년 2,048개사 → '14년 2,200개사)

○ 내수·수출초보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판로개척+해외마케팅+무역금융) **지원 확대**('13년 1,531개사 → '14년 2,071개사)

* '14년 지원계획 : 수출첫걸음(코트라) 700개사, 수출스타트업(무협) 300개사, 수출역량강화사업(중기청) 1,000개사, 수출성장사다리사업(무보) 71개사

○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대상으로 **제품 고장원인 분석, R&D 공정 재설계, 시험·평가 등 수출 연계형 신뢰성 지원*** **확대**

* 수출연계형 신뢰성 신규과제 지원(비중) : ('13년) 50% → ('14년) 60%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유망 중소·중견기업 **200개사**를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집중 육성**

○ **후보기업 200개사로 확대***(4·10월, 현재 46개사) 및 **4대(전략·인력·금융·마케팅) 지원센터**(3월 출범)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 5년내 수출 1억달러 달성 잠재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10월)하여 수범사례 확산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해외진출기업 채용박람회**(6월) 등을 통한 현지인력 채용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공급처 다변화*** 지원

* Global Partnering China(6월), 세계일류상품전(10월) 등과 연계

○ **현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Help Desk : '13년 3개 → '14년 7개), **상시 법률자문서비스** 시범 추진(5월, 독일)

(3) 무역 2조불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 **중계·가공무역, 전자상거래 수출, 정부간 무역(G2G) 및 절충교역**을 새로운 수출먹거리로 **집중 육성**

□ **(중계·가공무역 육성)**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고금융*** **신설** 및 **단기수출보험 지원범위 확대****(6월)

*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대금 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지원
** (현행) 국내법인 → (개선) 국내법인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 국내가공으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 상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원산지제도 개선**(6월)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6월), 및 해외 오픈마켓(e-bay 등)에 중소기업 상품 등록 확대

* 독립된 Mall in Mall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14년 100개사 지원

○ 해외소비자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느끼는 **물류·결제 애로 해소** 및 전자상거래 무역의 **수출·세무 신고제도 개선**(12월)

□ **(정부간 무역(G2G) 본격 추진)**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7월)하여 **G2G 계약지원범위를 非방산물자로 확대**(현재는 방산물자만 지원)

○ **'14년 5억달러** 규모의 **방산·非방산물자 수출계약** 성사 기대

□ **(절충교역 확대)** 중형항공기·소형헬기 등 **절충교역 확대 대상 발굴·선정** 위해 산업부-방사청 정기채널 구축 및 규정 개정(6월)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13.12월)으로 군수품外 물자도 절충교역 대상에 포함

※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방안」을 마련하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상정

(전략 2) 규제개혁 및 투자 활성화

❖ **지역의 관행적 규제 및 무역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 및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 유망업종별 **맞춤형 유턴투자 유치** 및 지원체계 가동 본격화

(1) 지역·무역·인증 분야 규제 개혁

□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를 투자활성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 기존의 등록규제 중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재검토 대상 규제를 선별

-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대상 규제 정비계획 마련

□ **보이지 않는 지역규제**와 중소·중견기업의 **풀뿌리형 애로** 적극 해소

* 대형·덩어리규제는 무역투자진흥회의·규제개혁장관회의 통해 해소

○ **대한상의**(지역상의, 정책자문단), **산단공**(지역본부)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별 잔존 규제 및 투자저해 관행* 발굴 후, 해결 추진

* ① 지자체의 소극적 관행, ②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정, ③ 중앙정부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적 관행, ④공공기관(지사, 지점 등)의 행정편의적 규정 등

□ **중계·가공, 전자상거래 등 新무역 저해 규제 철폐**

○ 우리나라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내가공 수출품에 대하여 **'한국산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제도 개선**

○ 전자상거래 수출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수출신고제 도입,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절차·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온라인마켓 활성화

□ **부처간 중복인증 해소**,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등 기술분야 규제 개혁

○ 산업부 KS(품질)와 KC(안전) 인증제도간 **인증기준을 일치화***하고 국표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결과 상호인정**

* 전기용품(세탁기·냉장고 등) 및 공산품(가구, 압력솥 등)의 안전기준 837종과 해당 KS의 일치화 추진(6월)

○ 유사·중복규제 사전방지를 위해 국조실과 협력하여 각 부처 **신설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2)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 센터, 복합 리조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중점 유치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헤드쿼터 인정기준* 마련과 함께, 외국인 직원 소득세 특례제도(17%) 지속적용 등 맞춤형 인센티브** 구축

* 제조업 1천대 기업, 3개 이상의 자회사 관리기능 수행, 투자금액 백만불 이상 등

** 국제거래 관련 과세기준의 효율적인 조정시스템 구축, 무형자산 이전가격 산정 관련 절차 간소화,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한 출입국 편의 확대 등

○ **(R&D 센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R&D 센터 유치에 적합한 입지 지원제도 도입**

* 외국인 투자기업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년간, 50%)을 '18년까지 적용

** R&D 센터의 입지 지원대상에 현행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포함

- 외국인 투자기업 R&D 센터와 국내 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해 **FTA 효과,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 활동 전개

○ **(FTA) 美·EU FTA**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투자유치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투자설명회** 전개

* 항공, 바이오, 에너지, 엔지니어링, IT서비스 등

○ **(동북아 오일허브)** 석유공사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오일 물류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 **일본·중국** 기업대상으로 민관합동 투자유치 활동 집중 전개

○ **(일본)** 「외촉법」 개정 내용 홍보 및 후속투자 발굴을 통해 **국내기업-외국기업간 합작투자 프로젝트** 본격화

* SK·GS의 합작투자 2조 3천억원(외투 1조 670억원) 조속 추진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글로벌 외국기업간 추가 합작 프로젝트 발굴 등 추진

- **對日 소재부품 수입품목 분석** 등을 통해 유치대상 일본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활동 집중 전개

○ **(중국)** 제주도·새만금 등에 중국의 **리조트, 식품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 지자체, 새만금개발청 등과 공동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 100% → 50% 등

-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조지메이슨대 등 외국대학 3개교 추가 개교(3월, 9월) 추진

○ **(외투지역)**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조세감면·임대료** 차등 지원

-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한도 산정시 **인력당 감면한도 확대**(현행 1천만원 → 최대 2천만원)

- **(임대료 감면)** 단지형 외투지역에 대한 임대료 감면시 기업의 **고용창출 실적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 (現) 제조업 5백만불 이상 75% 감면 등 → (改) 고용효과에 따라 차등감면(최대 100%)

(3)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활성화

□ **유턴 유망업종 유치를 통해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

○ 전자부품, 의류, 신발·피혁, 전기·운송장비 등 **유망업종*과 지자체 투자유치 수요를 연계****하여 **유턴 기업 집중 발굴**

* 5대 유턴 유망업종 : 한·중 제조업 생산비 분석결과 국내생산 유리(삼정 KPMG)
** 전자부품(경북), 주얼리(전북), 신발(부산), 충남(기계), 광주(자동차부품) 등

○ 정부·지자체, 지원기관 공동으로 **유치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원활한 유턴 유도

□ 유턴기업지원법 시행('13.12월)에 따라, **최초로 유턴기업을 선정**하고 **유턴 단계별 지원 본격화**

자로 지원이 시급한 20개사 우선선정(3월), 유턴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 **청산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철수를 지원하고, **입지·설비·고용보조금 및 법인·소득세 감면** 등 다각적 **투자 인센티브*** **제공**

* 보조금(분양가·임대료 30% 감면, 설비투자 금액 10% 보조, 1인당 최대 720만원 고용보조금 지원), 법인세·소득세 최대 7년간 50~100%감면 등

○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14년 227억원) **대상 심사시 유턴기업을 우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지원

□ **집단 유턴기업**에 대해 **입지·인력·R&D 패키지 집중 지원**

○ **생산시설, R&D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반유턴 협력업체들에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인**

* (익산 주얼리) 공동R&D센터 준공(6월), 아파트형 임대공장 착공(6월)
(부산 신발) 신발집적화단지 조성(10월), 재직인력 역량강화 훈련(年 200명)

(전략 3)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

❖ **新산업 발전 토대 마련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 장애요인 해소**와 **맞춤형 지원정책 실천 본격화**

(1) 제조업 지원 및 융합 서비스 시장 육성

□ **(엔지니어링) 제조설계 국산 SW 개발·보급 및 인력 양성 지원**

○ **웹기반 제품설계 SW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보급하고, SW 개발업체와 활용업체간 협력을 통한 **핵심 SW와 제품 개발 지원***

*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지정제도 추진(2월 공고 예정, 10여 개사 선정 예정)

○ 단기과정* 및 특성화대학** 등을 통한 **현장 설계인력 양성 지원**

* 재직자 대상 제조설계 SW 운영·해석 교육과정 운영(인천·부산 등 5개소)
** 포스텍 엔지니어링대학원, 특성화대학 등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年 120여명)

□ **(디자인)** 엔지니어링 디자이너 양성*, 디자인-R&D 융합 확산*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기획역량 축적**

* 항공, 로봇 등 디자인 특성화대학원을 개설하여 전문 엔지니어링 디자이너 양성
** 해양·조선, 의료 등 5대 제조분야 대형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14년 50억원)

○ **'공공·서비스 디자인 육성 로드맵'** 수립, **대가기준·표준계약서 개선** 등을 통해 디자인 서비스시장 활성화

□ **(시험인증)** 3대 분야*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별 전략로드맵 수립**('14.6월)

* 규제수요(에너지저장장치 시험 등), 경쟁우위(선박검사 등), 융복합(의료정보 인증 등)

○ 브랜드 파워 제고 및 업계 자율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대·중소 시험인증기관 **컨소시엄 구축**('14년) 및 **통합브랜드 도입**('17년)

○ 기업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해외인증정보시스템** 구축('14.4월) 및 **해외 5대 거점* 확보 추진**

* 미주, 유럽,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거점 지역에 교두보 구축

□ **(산업설비 거래·유지보수) 기계설비 매매장터, 정보화시스템** 등 유통시장 선진화 및 서비스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14년 50억원)

○ 유통, 수리, 재제조 등 서비스기업 집적을 위해 민간주도로 시화 MTV 매매장터內 **기계설비 Total Service Complex 조성**('14~'15년)

○ 가치평가·성능검사 기준 마련(4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14년), 전문자격제도 도입('15년)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조성**

○ 장비 O&M 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및 **공정한 O&M 서비스 이용사례 확산·관리 강화***

* 민간기업은 공정위「협약이행 평가」시 O&M 서비스 포함 추진, 공공기관은 동반성장 평가시 O&M 관리에 대한 사항 중점 점검

□ **(자동차 튜닝) '20년 국내 튜닝시장 규모 1.5조원**(현재 0.5조원)을 목표로 **자동차 튜닝부품 산업기반 확충**

○ **거점별 특화 클러스터 구축***과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부품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수 품질표시제 도입** 및 **부품거래정보시스템 구축**

* (전남 영암) F1서킷을 활용한 튜닝부품 개발-평가 R&D 인프라 구축
(대구) 튜닝부품 판매업체 밀집지역(남산동 72개)에 튜닝지원 서비스센터 구축

○ 일반인 대상 **튜닝 셀프피팅·드라이빙 스쿨** 운영, **튜닝 미니경기장** 구축(강변둔치) 등을 통해 올바른 튜닝문화 정착 및 시장활성화 유도

* 국내 튜닝차 동호회는 약 100개, 100만명이 레이싱, 미니경기 등 활동 중으로 추정

□ **(3D프린팅)** 통합지원 허브 구축*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 공정혁신 지원** 및 미래 기술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기술로드맵*」 수립**('14.8월)

*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14~'18, '14년 20억원)
→ 장비·기술지원, 실용화 컨설팅 등 3D프린팅 활용 공정혁신 지원 수행

** 로드맵을 바탕으로 미래부 협업(SW)을 통한 장비·소재·SW 국산화 R&D 추진

(2) 에너지 산업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

□ **ICT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 지속 창출**

○ **전력 수요관리시장 개설**(「전기사업법」 개정), 신재생설비에 ESS 연계시 **REC 가중치 우대** 등을 통해 **ICT기반 수요관리 시장 확대**

○ **에너지 新산업**(ESS, EMS, DR, CCS 등)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시장성 확보** 지원

< (사례) 도서지역에 '에너지 자립 섬' 시범 추진 >

◇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현재 디젤발전기를 대체하여 풍력, 태양광, 매립열, ESS 등을 연계할 경우 큰 추가비용 없이 **에너지자립** 실현 가능

□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 촉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지속 확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의무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조정(6월), 소규모 사업자 태양광 시장 참여 확대
**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 ('14) 12% → ('20) 30%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발전단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 대규모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건설과 규제완화를 통한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로 **우리나라를 세계4대 오일허브로 육성**

○ 운영중인 여수저장시설 외 **울산 북·남항 상업용 탱크터미널 구축 본격화**

○ 석유거래 활성화, 금융인프라 정비 등 **제도개선 중점추진**

2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추진전략	**4.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 **5.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 **6.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관련 국정과제	**7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6-③ 선도자형 산업 R&D 및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6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10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전략 4)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

❖ **우리 산업의 창조경제 실현**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본격 추진**

□ 旣 확정한('13.12월, 국과위)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

시스템 산업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자율주행 자동차	·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 국민 안전·건강 로봇 ·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소재·부품 산업	**창의 산업**	**에너지 산업**
· 탄소소재 ·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 생체모사 디바이스 · 가상훈련 시스템	·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 직류 송배전시스템

< 기대효과 >

- **산업엔진 장기 추진**으로 민간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민간 투자방향 제시**
- 융합(제조업+IT·신기술 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新산업생태계 창출**
- **연관 중소·중견기업 및 기반산업**(소재·부품, 뿌리산업, 임베디드 SW 등) **발전**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부의 미래 성장동력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단 등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산·학·연이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 산업계 인식 확산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업계 및 민간단체 중심 **산업엔진 프로젝트 T/F를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상반기)

프로젝트 추진체계



- 산(대·중소)·학·연간 역할 분담
  - (대기업) 수요업체 참여 및 고위험 기술개발
  - (중소·중견기업) 장비·부품 기술개발
  - (대학·연구소) 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

□ 기술개발과 함께 **글로벌 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등 종합 지원

○ **(기술개발)** 높은 투자리스크로 민간의 독자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R&D 투자*로 민간투자 유도**

* 프로젝트를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대형 과제는 '1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심의 후 '15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

○ **(사업화 펀드)** 초기 사업화 기업, 新산업분야 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펀드 출시**

* '14~'21년간 新성장동력펀드 회수금(약 3,500억원) 등을 활용하여 기업수요, 투자리스크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이 담긴 '산업기술금융 펀드 로드맵' 마련(4월)

○ **(핵심 SW 개발)** 13개 산업엔진 과제 중 SW 비중이 크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7개* 분야에 대한 핵심 SW, SoC, 플랫폼 등 통합 개발

* ①자율주행자동차, ②구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③웨어러블 스마트기기, ④가상훈련 시스템, ⑤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⑥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⑦안전·건강 로봇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국제협력)** 핵심 기술확보를 위한 **기술획득형 R&D 과제기획 착수*** (4월~) 및 R&D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추진

* (佛) 한-불 산업엔진 전문가 기술포럼 개최(5월 중순), (英) 한-영 R&D 전담기관 간 산업엔진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실무자 연락체계 구축(상반기)

** 한-이스라엘 사례처럼 50:50 매칭을 원칙으로 추진(프랑스와는 旣 합의)

○ **(장비개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지원할 **'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14~'17)' 수립(10월)

* 생산시스템, 신성장동력장비, 첨단 연구장비 등 기존 장비개발사업('14년 1,014억원) 개편

* 하이테크 분야 협업네트워크(요소부품-운용체계-완제품 라인업) 구축, 중소기업·대학·연구소와 수요기업(활용)이 연계한 공동 패키지방식 기술개발 추진

○ **(투자유치)** VIP 유럽순방시 체결한 **코트라-UKTI 투자협력 MOU**를 활용한 **한영 투자유치단 구성·파견 추진**(9월)

* (MOU 주요내용) 무역, 투자,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정보수집 및 교환 등 업무협조, 전시회 개최, 사절단 파견, 설명회/세미나 개최, 조사, 투자유치 활동 협력 등

○ **(표준) 전략적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新시장 창출 주도 및 **국가표준코디네이터**를 통한 R&D-표준 연계**로 신속한 사업화 추진

* 국제표준 기술위원회 신설, 표준프로젝트 리더 수임, 국제표준제안 확대 등

** 다양한 융합기술에 대한 범국가 표준화 전략 기획·수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전략 5)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

(1)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등의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 (고용·교육부 협업)

○ **산업단지 내 대학(산학융합지구)**에 진학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산

* 산단 내 기업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또는 계약학과 (주말·야간과정)에서 학업
* ('14년) 200명 → ('17년) 1,000명

○ **중견연합회 등 경제단체 중심**으로 기업-인근대학 계약학과간 연계, 교육과정개발, 경력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착수

* ('14년) 50개 기업, 170명 → ('17년) 400개 기업, 1,400명

→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종·지역별로 확대**

* (경제단체) 기업발굴, 공동 리쿠르팅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교육장비·시설 투자

□ **인력수요 급증분야 특성화대학(원) 역점 지원**

○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특성화대학 지원을 확대**하여 고급기술인력 지속 양성*

* ('14) 1,250명 → ('17) 2,000명 목표

○ 국내진출 외국 이공계 대학(원)을 활용하여 **산업석박사센터 설치, 공동 R&D** 등 산학협력 지원

* 산업 석박사 : 논문보다 현장프로젝트 성과와 문제해결역량 중심 학위 부여

□ **경력단절 예방·해소를 통한 여성R&D 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확대**

○ 시간선택제 전환 연구원 인건비 지원 허용,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80만원 지원수당 지급) 신설, 가점규정 강화

○ 여성공학인 고용포럼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사회적 분위기 확산**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 비즈니스 아이디어(BI)의 사업화 환경 조성

□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신제품·시장 창출 촉진

○ **창조경제타운**(온라인)**, BI 사업화 지원기관***(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간 유기적 연계로 우수 BI 발굴·사업화 지원(미래부 협업)

* 가전, 생활용품, IT 등 10대 업종별로 BI 발굴, BM 수립, R&BD 등 지원 전담

○ 발굴된 BI는 **민간전문가**(홈쇼핑 MD, 상품기획자)**를 활용**한 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시장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로 기획·개발

○ 우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업화 R&D를 집중 지원**하여 **성공사례 도출·확산**(10대 우수 BM 프로젝트 추진, 6월)

<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추진 프로세스 >

①우수 BI 발굴	②BM 수립	③사업화 R&D	④제품화
온·오프라인상 아이디어 발굴	전문가·멘토를 통한 사업화 컨설팅 제공	창의·시장성 높은 우수 BM 사업화	우수 BI 인증제 등 초기시장 창출지원
창조경제타운 등	BI 사업화 지원기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4월), **초기사업화기업 자금애로 해소**

* 초기 사업화 펀드 확대 출시, R&D 전담은행을 통한 기술기반 저금리 융자 확대 등

(3)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 성과공유형 동반성장의 전방위 확산(동반성장 3개년 기본계획 수립, '14.5월)

구분	기존	新동반성장
목표	▪ 공정거래, 사회적책임(CSR)	▪ 성과 협력, 공유가치창출(CSV)
대상	▪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대기업-중소기업 중심)	▪ 1차-2·3차 협력사로 확대 (대-대기업, 중소-중소기업간 포함)
분야	▪ 제조업 중심	▪ 금융, 의료 등 서비스업으로 확산

○ **성과공유체계를 全산업체로 확산**하고 공유가치창출(CSV)에 중점

○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을 **중견기업-2·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R&D, 마케팅 등 **성장기여도 높은 분야 중심으로 협력**

○ 제조업 중심의 동반성장을 은행(금융권), 병원(의료계), 디자인 등 **서비스업종으로 적용범위 확대**

* 서비스업에 특화된 성과공유제 모델 개발('14.3~8월), 시범사업 적용('14.9월)

□ 대-중소·중견기업간 양방향 협력 강화

○ **(기술·특허)** 중소기업 아이디어에 대기업이 R&D 자금을 지원하는 **'신기술공모제'** 확산 및 **대기업 보유 휴면기술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 동반성장 투자재원 중 중소기업 R&D 등 신기술개발에 투자비중 확대
* 기술나눔 확산 업무협약 체결('14.3월), 대기업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年 4회)

○ **(생산성·혁신) 대·중소기업간 생산물량 협력 유도*** 및 **「산업혁신운동 3.0」 참여기업 확대**('13년 2,000개사 → '14년 4,000개사)

* 국산부품 우선사용, 협력사 물량비중 증가 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14년)

- **기술컨설팅단 구성**('14.3월), 정부사업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혁신 3.0 전진대회('14.7월) 등 우수사례 확산

○ **(판로·마케팅) 구매상담회 개최**('14.10월, 유통산업주간) 및 대·중소기업(수직관계)간·협력기업(수평관계)간 **국내외 시장정보 공유 강화**

제조-유통 해외 동반진출 상담회 개최, 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총100개) 회원사간 정보교류 강화, 글로벌 프랜차이즈 정보제공포탈 구축('14.4월) 등

□ 글로벌 외국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 활성화

○ GE와의 협력을 계기로 아람코·지멘스·시스코·퀄컴 등 유수 글로벌 외국기업으로 협력사례 확대(미래부 협업)

< GE와의 협력사례 >

◇ **GE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역량강화 추진**

* 해양플랜트, 헬스케어, 항공산업, 기술·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

GE 보유특허 공개(약 1,000건)	▪ 사업화지원·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GE 브랜드·글로벌 유통망 활용	▪ 마케팅 역량 강화·수출확대
투자유치	▪ 유방암 촬영기기 투자유치('13.12월 MOU)

◇ **「산업부-GE간 MOU」** 및 **「GE 특허·브랜드 활용 설명회」**를 통해 Kick-off

○ 국내 소재산업의 글로벌 초일류기업 구매시장 진출방안* 마련

* 엑슨모빌(에너지개발), 보잉(항공) 등 글로벌 초일류기업을 직접 타겟팅하여 네트워킹, 기술개발, 신뢰성, 테스트베드 등 지원정책 최적화

(전략 6)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 올해는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를 **지역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실천을 본격화**

(1) 중장기 지역발전로드맵 수립

□ **창조경제의 지역 착근**을 위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7월 지역위, 부처합동)

* 국가균형발전법 개정('13.12월)으로 시·도 발전계획,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등의 수립근거 마련

○ **지역자율에 기초**하여 **시·도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정부 지역정책의 실행계획** 마련

(2) 지역별 산업생태계 및 여건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역산업 지원

□ 지역기업 수요와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시·도별 '5대 주력산업'과 '3대 협력산업' 선정·육성**

* 추진방식 : 산업부-시·도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지역별로 지원대상 산업 결정(주력산업은 5개 이내, 협력산업은 3개 이내)

○ 주력산업은 시·도 단위에서 제조업·지식서비스업·뿌리산업 등 산업별 경쟁력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

○ 시·도 경계를 초월한 산업생태계에 기반을 둔 협력산업을 지원하여 부가가치·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 제고

* 시·도 협력산업을 선정('14.3월)하고 시범사업 추진('14년 200억원)

□ **지역연고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명품으로 육성**

○ 지역기업과 주민 주도로 지역내 특색있는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생활권 및 시·군·구 단위 '지역연고산업' 발굴·육성**

* (예) 안경, 주얼리, 공예·장식품, 유기·자기, 주물, 주방용품, 기능성 식품 등
* 지역연고산업을 선정('14.3월)하고 시범사업 추진('14년 110억원)

○ 업종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IT·디자인·콘텐츠·소재 등을 융복합**한 **글로벌 생활명품 육성** 추진

* '생활산업 고도화 전략' 마련 및 30대 생활산업 선도기업 육성(9월)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구매력·기술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산업 창출**

○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을 선정·육성***하고 인력양성·채용·R&D 등 **맞춤형 지원****

* 광주-한전-전력산업, 울산-석유공-에너지부품, 부산-해양硏-해양산업 등 지원('14, 60억원)
** 한전(나주)-조선대 연구개발 MOU, 석유공(울산)-울산과기대 인력양성 등

(3) 산업단지를 청년과 기업을 위한 혁신공간으로 재창조

□ **전국 산업단지 7개를 선정**(상·하반기 1회)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혁신역량 강화 및 근로·정주여건 개선**

*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및 종합 비즈니스센터 조성, 산·학·연 클러스터링 지원, (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직장어린이집 설립, (문체부) 문화재생사업 등

□ 산업·지원·공공시설의 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입** 등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산업집적법 개정, 6월)

* 생산·R&D·교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을 집적한 '융·복합집적지' 조성 허용

□ **산업단지 박람회 개최***, 투어 프로그램, 성공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공유하여 **지자체·입주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

* 산업단지 지정 50주년을 기념하여 미래 산업단지 혁신방향 및 비전 제시(9월)

□ 산업단지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통해 **청년인재의 산업단지 유입 촉진**

* 산업기술디자인방송(CH-i, 4월 개국)을 활용한 우수 지역기업 기획보도, 희망이음 프로젝트(4~10월)를 통한 지역기업-청년취업 연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11월)

3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

추진전략	7. 대외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추진 8.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9. 자원·에너지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
관련 국정과제	129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10 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전략 7) 대외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추진

❖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통상정책**을 추진
⇨ FTA 시장규모를 현재 **55%에서** 향후 **71%**로 확대

□ **(FTA)** 新통상로드맵('13.6월) **린치핀(linchpin) 전략***에 따라 **FTA 추진**

*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 역할**

○ **거대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한-중 FTA와** 아세안 주요교역국이자 산업·자원협력국인 **인니·베트남, 영연방 3개국**과 **FTA 중점 추진**

○ **TPP는**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분석(3월), 추가공청회 등을 토대로 **우리입장 결정**

□ **(다자간 협의)** 글로벌 무역 자유화 및 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무역협상 및 협력에 적극 참여**

○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WTO 발리 각료회의시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기업 활용도·경제효과 제고**

○ IT, 서비스 등의 분야의 **복수국간 협상에 적극 참여**

○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활성화에 대비, **분야별 전략을 재점검**하고 작업계획 논의에 대응

○ APEC, OECD, G20 등 **다자협력체에서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의제 발굴** 및 **논의**에 적극 참여

□ **(소통) 업종별 통상산업포럼·지역 설명회**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보호무역주의**에 산업계와 **공동 대응**

* 통상산업포럼 22개 업종별 분과회의(1~3월)·전체 회의(3월), 비관세장벽 협의회(3월·9월)·수입규제 국내대응반(수시) 운영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성과확산) 무역자유화의 실익**이 사회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선제적 국내대책**과 함께 **민·관의 통상역량 강화**

○ **보완대책의 내실화**와 함께,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협정 체결전**부터 추진 가능한 **지원대책 발굴**

* 농수산물 수출지원 협의회(분기별), 중국 농식품 구매사절단 파견 등

○ FTA 확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보완 및 운영개선**

(전략 8)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1) 정상외교 성과의 기업활용 촉진

□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가동 및 지속적인 후속관리**

○ 정상외교 성과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및 **비즈니스 활용정보, 지원사업**을 포함한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가동(1월)

* 정상공동성명(9건), 기업활동 관련 MOU(72건), 경제행사 등 포함

**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정상외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부는 부처별 **후속조치 이행, 경제성과 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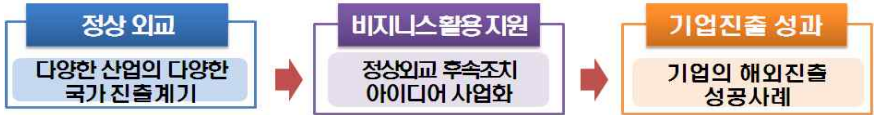
□ **정상외교 성과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기업의 정상외교 성과 활용에 각 부처·기관 **해외진출지원사업,** 정책 금융, 기술협력, 인력양성, 정책자문 등 **맞춤형 지원 실시**

- 맞춤형 기업지원 이행 관리를 위한 **「기업지원 범부처 협의회」** (주재 : 산업부 제2차관) 운영

- 정상외교 성과 관련 **기업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부처별로 해외진출 지원사업·시스템과 **맞춤형으로 연계, 성공사례 발굴**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가 정상외교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비즈니스 관련 아이디어를 기업의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



(2) 권역별 여건에 특화된 협력 중점 추진

□ **(중국) 경제개혁, 소비수준 향상 및 내수시장 성장** 특화 **진출 확대**

* 고급소비재(농식품 수출상담회, 관광객 이용 산업 활성화), 지방정부 진출 등

□ **(동남아)** 본격적인 산업화 수요에 맞춘 **제조업·발전 분야 특화**를 고려하고 경제발전 이행계획지원에 따른 **기술이전·협력도 병행**

* (인니) 에너지·자원, 인프라, (베트남) 원전 및 화력발전소 등, (미얀마) 섬유

□ **(중동)** 에너지·플랜트 및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등에 적합한 **발전소, 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추진**

* (이라크) 유·가스전 및 발전, (UAE) 원전 및 유전개발(50억 배럴) 및 신재생에너지

□ **(중앙아)** 산업다각화에 따른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

* (카자흐) 석유화학 플랜트 및 신재생에너지, (우즈벡) 가스화학 플랜트 및 섬유

□ **(구주) 창조경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한 혁신·중소기업 정책공조, 기술협력, 투자 확대 등 추진

* (EU) 산업정책대화 개최, (獨) 중소기업기술협력 MOU 체결, (英) 투자유치단 파견

□ **(미주) 미래에너지**, 방산 및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 진출**

* (페루) 방산, IT, 병원, (베네수엘라) 발전소·정유공장

(3) 청년 전문인력들의 해외진출 활성화

□ **(UAE) 중동·아프리카 비즈니스 중심지**로 **우리 전문인력**에게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진출 유망지역**

* 원전 수출을 계기로 형성된 신뢰관계, 한국과 인력교류 및 협력 확대의사 등

○ UAE와 **원전 운영·정비지원계약**을 체결(연내)하여, **'20년까지 1,500여명**의 일자리 창출

○ **원전서비스, 자원개발**, 특허 등으로 청년 **진출분야를 다변화**

○ **UAE 최대 관심사**인 양국 청년들의 **공동 교육훈련, 인턴십** 등 교류를 확대하고, 중동·아프리카·유럽 등 **제3국 진출도 촉진**

→ MOU 체결, 현지 교육거점 등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

□ **(스위스·영국) 대통령 국빈방문** 시 체결한 청년 해외진출 관련 **MOU**를 차질 없이 이행

○ **스위스 전자·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과 **영국 해양엔지니어링 설계 대학원**에 총 **100명** 파견 및 **취업 연계**('15~'17년)

□ **(신흥국)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

○ **'14년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중기청 협업) 개설을 통해 **100명**을 양성

○ **K-Move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발굴, 취업 및 창업 지원

(전략 9) 자원·에너지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

(1) 자원개발 : '양적확대' → '질적성장'

□ 정상급 외교 기회를 활용하여 **UAE 10억 배럴 생산유전** 확보 노력, **셰일가스** 등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

< '14년 주요사업 >

- (오일) UAE 3개 광구 탐사사업 추진
- (개발·생산) 볼레오 동광 생산개시
- (셰일가스) 美 이글포드 생산량·매장량 확대
- (대륙붕) 동해 가스전 탐사·개발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시험('15년) 설계

□ 투자심의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투자실명제 도입**으로 에너지 공기업 투자 프로세스의 책임성·전문성·투명성을 강화

(2) 원전 수주

□ **원전발주가 가시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 적극 추진**

○ **(핀란드)** 발주사(민영 TVO社)와 입찰협상 진행 중

○ **(베트남) 양국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중

○ **(기타 주요국)** 사우디,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회담, 협력 MOU, 로드쇼 등 양자 협력 적극 추진

(3) 수주 기반마련

□ **금융·인력**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역량 확충

○ **(금융)** 대출·보험(보증) 지원 **61조원**으로 확대(무보·수은), 자원개발 펀드 보증·융자 등 재원확충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 **(인력) 2단계 자원개발특성화 대학 사업 추진**(4월), 플랜트 분야 전문인력 양성('14년 3,120명) 등 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급

4 산업 · 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전략 10)

(전략 10) 산업 · 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1) 철저한 원전 운영과 전력수급 관리

□ 원전비리 근절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 경영활동**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법제화**하여 상시적·근본적 비리예방 체계 확립

○ 원전산업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13.6~12월)를 통해 도출한 **'혁신 방안'**을 철저히 이행

- 아울러, '13.6월 수립·추진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실태점검**(분기별)하여 추진성과 제고

○ 안전최우선 원전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신뢰 회복

- 안전점검 강화, 설비교체, 안전투자 확대 등 적극 추진

□ 안정적 전력수급 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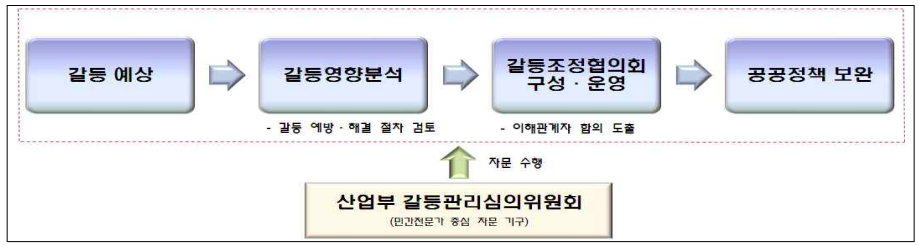
○ 건설 중인 **발전소 적기 준공**, **발전소 고장 최소화** 등을 통해 동·하계 적정 예비력 확보

(2)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사전적 갈등예방을 위한 체계적·효과적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 **갈등 예상 사안**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사전에 실시**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이견 조정

<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개요 >



□ **(사용후핵연료)** 국민과 열린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공론화**를 **충실히 진행**하고('14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관리정책** 수립·추진('15년~)

□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시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3)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지속 추진

□ **공공기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근절**

○ **(부채감축)** '17년까지 **11개 에너지 공기업 총부채**를 **184.5조원** 규모로 축소, **부채비율을 155.3% 수준**으로 감축

○ **(방만경영 근절)** 16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전년대비 '14년 38.6% 감축) 등 **강도 높은 방만경영 개선**활동 전개

○ **(이행점검 강화)**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등 **자체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도면밀한 정상화 이행 관리 추진**

□ **산업부 R&D 자금의 원천적 유용 방지**

○ 연구비 유용소지 원천제거를 위한 **「실시간 감시·관리시스템*」(RCMS) 전면 도입**('13년 91.4% → '14년 100%)

* 시중은행, 카드사 및 국세청과 연계하여 실제 거래증빙 기반으로 실시간 연구비를 지급하고, 집행·정산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으로 연구비 관리

▪ '10년 RCMS 도입 이후, **224건의 유용·횡령과제가 발생**하였으나, **이 중 RCMS 적용과제는 단 3건**

○ 장비·재료비 **구입내역 점검기준 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신설

- 전담기관 관계자가 현장 점검시 **1천만원 이상** 집행한 장비 및 **300만원 이상** 집행한 재료비를 직접 확인

* 점검결과를 정산과 연계하여 부적정 사용인 경우 불인정 또는 부정사용으로 처리

- 전담기관에 사업비 부정행위 신고시 **금전적인 보상제도** 마련·시행

○ **범죄성 유용·횡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해당 금액의 국고 환수조치에 더해 **검찰고발 및 제재부가금*** **시행**

* 연구비 환수 외에 추가적으로 유용·횡령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기관, 개인 대상으로 부가금 징수

(4) 국민이 행복한 공공서비스 제공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 「수집-보관-파기」의 개인정보 보호단계별 외부유출 방지, 목적 외 사용 등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기준 정비**

* 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지침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기준 마련 추진

< 수집 >	⇨	< 보관 >	⇨	< 파기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안전성 확보 조치		보유기간 경과파일 파기

○ 소속·산하 공공기관(41개) 등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주기적 점검**

□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방호자문단)** 보안·테러예방 등을 위해 군(軍)에서 퇴직한 경계·작전분야 전문인력으로 방호자문단 운영

○ **(기반시설)** 도시가스·LPG 등 기반시설의 철저한 안전 확보

- **20년 이상 운영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이발소·PC방 등 **소규모 LPG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확대

□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에너지복지 제공 확대**

○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요금할인 확대**

○ 취약계층 혹한기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법적 근거 마련**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